

## 한국 중학생들로부터 온 편지에 대해서

시마네현은 6월 11일, 제4기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출범시켰다. 그 2일 전인 6월 9일, 한국의 중학생들이 보내온 편지에 대해서 지방신문인 ‘산인주오신보(山陰中央新報)’가 ‘다케시마 교육 비판 편지-시마네현 56개 중학교에 한국학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그날 저녁 NHK 마쓰에방송국도 뉴스에서 ‘한국으로부터 다케시마 교육 비판 편지’라는 내용을 전했다.

다음날(10일) “아사히신문”(시마네 지방면)과 “요미우리신문”(시마네 지방면)이 보도함으로써 한국측으로 불뚝이 튀었고, 한국의 “중앙일보”는 “아사히신문” 기사에 대해 ‘독도 역사 왜곡교육 그만...시마네현에 편지 쓴 중학생들’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 기사가 한국국내에서 반향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 ‘다케시마 교육 비판 편지’를 보내온 인물은 한국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중학교의 3명의 3학년 학생들이었으며 내가 실물의 복사본을 본 것은 6월 10일, 연구회 준비를 위해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을 찾아갔을 때이었다. 중학생들의 편지에는 한국측이 ‘독도 교육’의 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국측의 ‘역사인식’이 그대로 적혀있었고 한국측의 독도교육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이었다. 그래서 다음날에 있을 연구회에서 검증하기로 하고 추가자료로 요청했다.

한국에서는 최근 청소년으로 하여금 국내외에 한국측의 ‘역사인식’을 발신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 편지도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 편지에 대해 보도한 일본 언론사들은 한국측의 현황을 어떻게 인식한 것일까. 이 편지는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며 그 자세야 말로 규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측이 다케시마를 한국영토로 주장한다면 아이들을 이용하지 말고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정부가 주장하고 외교의 장에서 낙착을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측에서는 ‘한일간에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국책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을 비롯하여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고 활동하는 반크(VANK) 등에서 청소년을 이용하여 해외를 향한 프로파간다를 장려 및 추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 ‘다케시마 교육 비판 편지’ 사건에는 후담이 있다. 6월 10일 한국의 ‘중앙일보’ 김호 기자가 함평중학교를 방문하여 3명의 중학생과 고문 김영배 교사(43)에게 인터뷰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김영배 교사는 ‘지금도 하고 있는 작업 중 하나가 편지를 일본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보내는 작업이며 일본에 있는 우리 중학생들의 친구, 일본 중학생 친구들한테 보내는 영상 편지 형식으로 UCC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해 이번 사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함평중학교 홈페이지에 의하면 6 월 12 일, 동학교 도서관에서는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에 의한 1 학년을 대상으로 한 ‘독도의용수비대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함평중학교 홈페이지에서)

이는 2011년 2월 한국 문화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독도교육내용체계’를 공개한 이후 한국에서 독도교육이 장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의 김호 기자의 질문에 응답한 한 중학생은 ‘과거에 체험학습으로 독도를 방문하고 독도의용수비대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독도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했다. 이는 함평중학교가 있는 전라남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독도수업자료 공급, 독도 역사문화탐방, 독도 수업실천연구회 등 독도교육 선도교육지원청으로 관여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31일, 2017년도판 “학습지도요령”에 처음으로 다케시마를 기재하여 공시했다. 그러나 일본에는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이 개발한 것처럼 다케시마 교육을 위한 부교재는 없고 학습지도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교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한국 중학생들이 보내온

‘다케시마 교육 비판 편지’에 대해서도 일본 교사들이 그 잘못을 지적하여 얼마나 적절한 지도가 가능할지 불안하다.

일본정부는 이 현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다케시마 문제가 발생한지 반세기가 지나도 일본정부는 아직까지 실효적인 전략도 전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는 2014년 3월에 “다케시마 문제 100 문 100 답”을 간행하여 다케시마 문제의 전모를 밝혔다. 경상북도의 ‘독도사료연구회’는 “다케시마 문제 100 문 100 답” 비판을 출판해서 반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경상북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던 “다케시마문제 100 문 100 답” 비판은 삭제되어 지금은 출판된 흔적조차 삭제되어 있다.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다케시마 문제 100 문 100 답”을 논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이 일본비판을 계속하는 것은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보고를 받아 외무성이 작성한 소책자 “다케시마를 이해하는 10 가지 포인트”에서 약점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와는 달리 외무성에는 반론하는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이를 꿰뚫어 한국측에서는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가 잘못을 지적해도 반론하지 않는 외무성의 견해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이 구조적인 결함을 극복하지 않는 한 다케시마 문제 해결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언론사들이 해야 할 것은 현상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다. 일한은 왜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폐해인 일한 양국의 병소를 적출해야 할 것이다.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을 때 이를 견제하여 조례 성립을 막으려고 했던 것은 일본정부이었다. 그 자세는 민주당정권이 되어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케시마 문제는 일한의 문제라기보다 일일(日日)한한(韓韓)의 국내문제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한국의 중학생들이 보내온 편지에는 다케시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함평중학교의 3명의 학생들은 한국의 “중앙일보” 김호 기자에게 ‘일본의 중학생들과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어른들의 훈수로 말하는 일한관계가 아니라 다케시마 문제를 공통의 과제로 일한 양국의 중학생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편지를 보내온 함평중학교의 3명의 3학년 학생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일본의 중학생 여러분들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연구해주기 바란다.

제 4 기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에서는 기존대로 한국측의 다케시마 연구를 검증하고 역사의 사실을 밝혀 나간다. 시마네현 내부뿐만 아니라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각각 할 수 있는 범위와 분야에서 참여해주셨으면 한다.

왜냐하면 다케시마 문제는 해결해야 할 일한간의 치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시모쵸 마사오 下條正男)